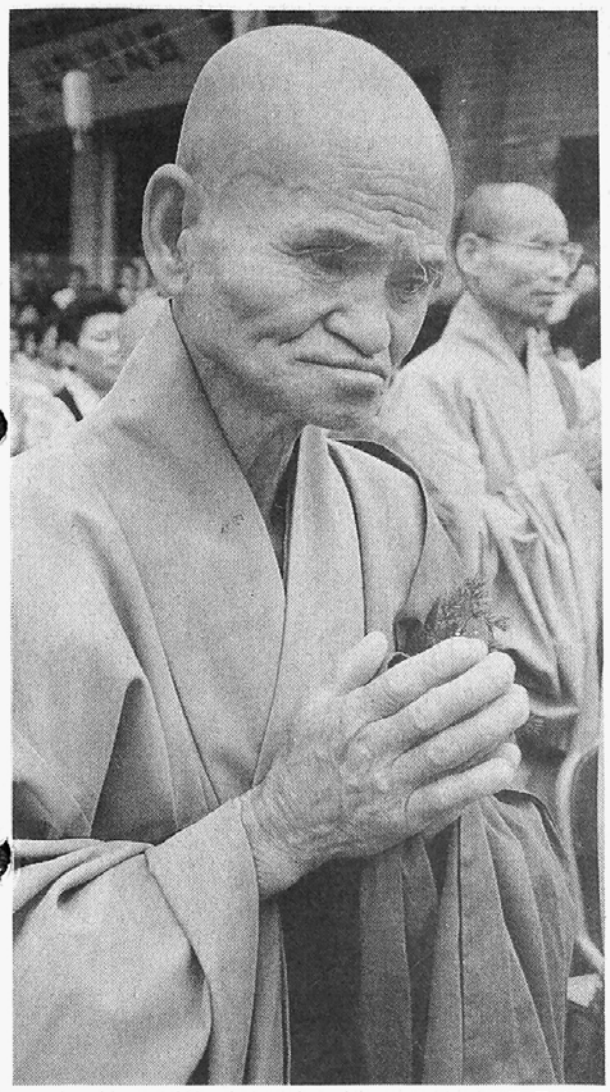
도천스님의 하루

창간1주년 특집 II



◇긴 눈썹, 꽉 다문입, 맑은 얼굴 그대로가 수행자의 체취를 풍긴다. 굳은 살로 뭉쳐진 큰 손이 평생을 운력과 수행으로 살아온 스님의 이력을 보여준다. 두문불출하던 도천스님은 화엄사 석탑에서 출현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참석차 모처럼 화엄사에 나들이 했다.

"그저 일하고 때되면 밥먹지"

금산 태고사 도천스님의 하루

해뜨기 전부터 해질때까지 운력…밤엔 참선
66년전 금강산서 출가…40년간 두문불출

큰 산(山)에는 큰 스님이 계신다.

충남과 전북에 걸쳐 자리한 대둔산에도 태고사(太古寺)에 도천(道川) 큰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도천스님은 큰스님이라 하지만 일반에게는 그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40여년간 두문불출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에 전념한다'는 풍문 뿐이다. 더구나 일체 말을 하지않아 묵언스님이라는 소문까지 들린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래도 도천스님의 하루를 지켜보는것이 곧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무작정 태고사를 찾았다.

저녁 예불이 진행되건만 도량 어디에도 도천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공양주보살이 "노스님은 건너편에서 일하고 계실것입니다"고 한다.

산속이어서 어둠이 빨리왔다. 어스름한 곳에 대여섯명의 인부가 공사판을 벌이고 있었다. 유독 벙거지를 쓴 스님 한 분이 부산하게 공사를 지휘하고 있기에 합장으로 예를 표했다.

작은체구, 곽다문 입, 긴눈썹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남의자식 대하듯 거들떠보지도 않는 스님을 지켜보다가 공사판에 합류했다. 이날 작업은 케이블을 연결해 대형 철근을 올리는 일로 무척 힘이 들었다. 스님도 직접 밧줄을 손에 잡고 철근을 옮긴다.

작업은 어둠이 완전히 깔린 7시경에 끝났다. 모두들 손을 털며 공양간으로 가는동안에도 스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자스님이 서울에서 온 기자라는 소개가 방문밖으로 들렸지만 들어오라는 소리가 없다. 두어시간을 스님방 언저리에서 서성거렸으나 소리없이 불빛만 보였다.

대둔산 인근에서 도천스님은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고 있다. '힘이 장사다' '밤이면 산속에서 도(道)를 닦는다' '축지법을 쓴다' 등이 숱한 일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어느 여름, 대전에서 왔다는 돈많은 보살들이 찾아와 시주를 하겠다고 했을 때 도천스님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쫓아냈다고 한다. 짧은바지를 입고 수도도량을 찾았기에 공부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다.

새벽 3시, 어김없이 도량석 목탁이 대둔산을 일깨웠다. 스님방에 불이 켜있었지만 감히 방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예불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뒤 밖으로 나가보니 도천스님이 계신다. 실장갑을 끼고서 도량의 곳곳을 살피면서 정리하고 있다. 대웅전 앞마당은 이미 깔끔하게 비질이 되어있다. 해가 뜨기에는 아직 이른시간이건만 도천스님의 아침은 무척 바쁘게 시작되고 있었다.

도천스님은 1929년 '평생 참선하며 살것'을 발원하며 금강산 마하연사에서 스님이 됐다. 도천스님의 은사는 신묵언스님이다. 은사스님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생 묵언수행을 하여 모두들 묵언스님으로 불렀던 것이다. 도천스님의 말이 없음은 바로 은사스님의 가르침인듯 하다. 해방이 되고 북한에 종교탄압이 일자 스님은 남한으로 내려왔다. 전국을 유랑하던중 금강산과 비슷한 기암절벽이 있는 대둔산에서 걸음을 멈췄다. 오늘의 태고사다.

다시 공사판의 노동이 시작됐다. 그냥 스님을 옆에서 뵐수 있는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났다. 86세의 노스님을 따라 팔을 걷어부치고 힘을 썼다. 점심나절이 되었을까. 도천스님이 다가오더니 "나는 그저 일하고 때되면 밥먹고 잠이나 자면서 살아왔어"라며 말을 한다.

감격스러웠다. 스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스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참선하는 스님네들이 공부하여 도를 이루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수행도량을 일으키는데 무슨 힘이 들어."

급한 마음에 격식없이 생각나는 것을 물었다.

"왜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말은 아무리 지껄여도 쓸데 없는 거야. 할 말만 해야지. 공부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일하면서 공부는 언제 하세요?"

"일하는것이 공부하는것이야. 일과 공부가 둘이아니지. 공부안하고 일만하면 후세 사람은 좋지만(도량불사가 완성되므로) 스님네가 할일은 아니지. 항상 내 생각(화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

도천스님은 혼자서 40여년간 태고사 중창불사를 진행해 왔다. 추운 겨울에도 장갑을 끼지 않고 손수레를 끌며 진입로를 닦았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 뜨기 전에 밖에 나가 해 지기 전까지 운력을 했다. 이렇게 도천스님이 일을 하고있어 태고사는 '3백65일 계속 불사중'이다.

큰스님 아래 큰 제자가 있는것일까. 도천스님의 제자 가운데 정안(正安)스님이 있다. 스님은 태고사에서 출가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 무려 27년째라고 한다. 앞으로 3년이면 1만일 기도를 회향한다.

"큰스님은 불보살의 화현이십니다. 말세중생계에는 말(言)만 있고 행(行)이 없는데 큰스님은 중생들에게 불보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안스님이 계속 도천스님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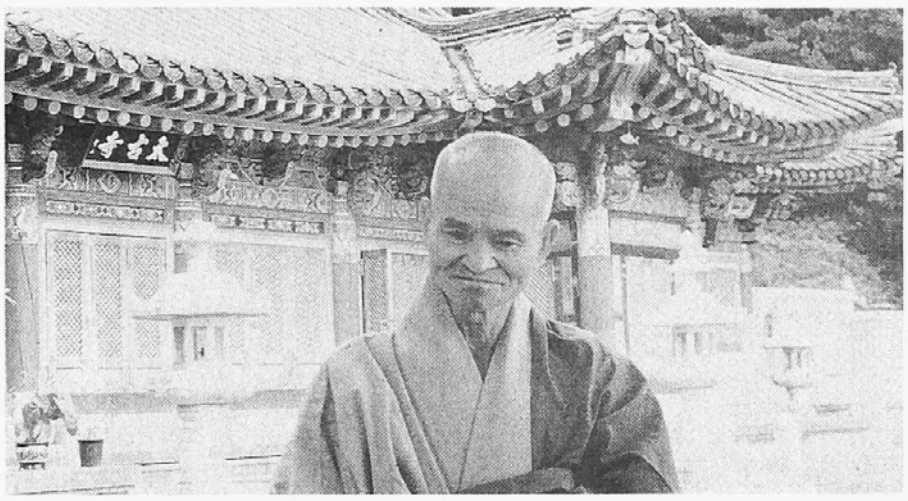
"큰 스님은 저희에게 세가지 가르침을 강조하십니다. 평생 공부하라, 계행을 지켜라, 나를 위해 살지말고 일체중생을 위해 사는 보살행을 펼쳐라. 이것은 곧 큰스님의 청규이기도 합니다."

태고사는 깊은 골짜기에 자리해 있다. 층층이 축대를 쌓아 도량을 이루고 있다. 축대사이의 작은 공간마다에는 채소밭이 일구어져 있다. 도천스님이 '그냥두면 잡초만 생긴다'며 이랑을 만들었던 것이다.

대둔산에도 단풍이 곱게 깔리고 있다. 많은 단풍객들이 큰 산 대둔산을 찾는다. 그러나 정작 도천 큰스님을 친견하고 배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명산 대둔산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대둔산 능선이 보살의 머리형태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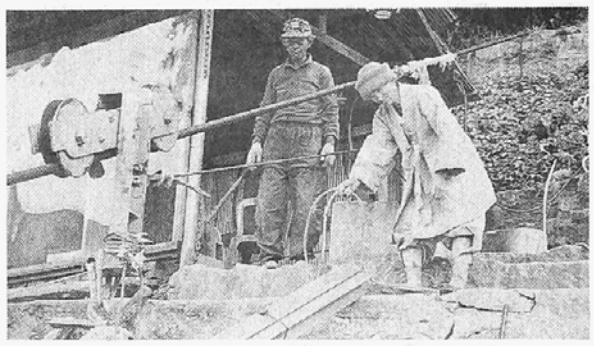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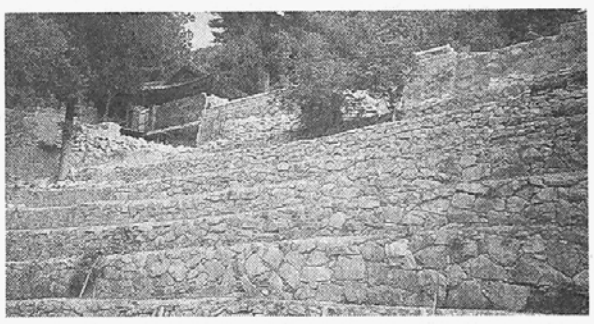
◇요즈음 태고사는 수도도량 중창불사 중이다. 스님에게 일은 곧 수행이다. 40여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 뜨기 전에 밖에 나가 해 지기 전까지 운력을 했다.



◇검정고무신을 신은 도천스님(사진 왼쪽)이 손수 손수레 끌며 일을 하자 1만일 기도중인 제자 정안스님(사진 오른쪽)이 은사스님을 돕고 있다.



◇태고사는 신라 원효스님이 창건했다. 6.25때 전소한 법당을 도천스님이 직접 운력하며 중창했다.



◇태고사는 대둔산 낙조대 아래에 자리해 있다. 험한 경사지 층층마다 채소밭을 일구어 부식거리를 생산한다. 돌축대가 마치 도천스님의 40년 수행을 상징하는 듯 하다.

부산 발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기원

제5회 낙동강 연등대법회

일 시 : 불기 2539년 10월 28일(음. 9월 5일) 토요일 오후2시

장 소 : 낙동강 하구언 을숙도

접수처 : 부산시내 각사암 및 포교당

동참금 : 1인 1등(10,000원)

교통편 : 지하철 하단역에 하차하여 행사장행 버스이용 (2분간격 배차)

행사내용

■ 식전행사
오전 12시 ~ 2시:수륙대재

■ 본행사
오후 2시 ~ 3시 30분:기원법회

■ 식후행사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불자연예인 공연 및 노래자랑
박상규 사회로 진행하는 불자 노래자랑에 참가하실 분은 10월 20일까지 접수바랍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 ☎ (051) 867-0501
오후 5시 30분 ~:유등행사 및 블꽃놀이

불자노래자랑 시상

대 상 : 상패 및 상금 50만원(1명)
금 상 : 상패 및 상금 30만원(1명)
은 상 : 상패 및 상금 20만원(1명)
동 상 : 상패 및 상금 10만원(2명)
장려상 : 상패(3명)
인기상 : 상패(1명)

행운의 추첨 상품

특등 : 대형냉장고(1명) 1등 : 텔레비젼(1명)
2등 : C.D플레이어(2명) 3등 : 가스렌지(3명)
장려상 : 전기후라이팬(10명)

※참가하신 모든분에게 기념품 증정

주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문의 : (051)867-0501~3